



### 소모임 <함길> (3월 24일)

봄을 만났습니다.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가슴벅찬 하루였습니다.  
봄에 느끼는 삶의 풍성함,  
생명의 요동, 흔들림....  
참석으로, 발제로, 안내로, 후기로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주저 말고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061)682-0610,  
010-4644-8619 (김상희 부장)

함길 3월 모임 후기 (김태성 회원)  
홍국사 옛길 생태답사, 봄 정취 만끽  
소모임 함길(함께사는길) 3월 모임은 지난  
24일(수요일) 홍국사 옛길 생태답사와  
함길책자 발제토론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오후 호명동 진각사를 출  
발해 자내리 마을, 편백나무 숲, 구시계  
곡, 홍국사, 홍교 구간을 걸었습니다.  
홍국사 옛길은 오래전 상인들이 붓짐  
을 매고 사근치(고개)를 넘은 소통의 길  
입니다.  
회원들은 홍국사 옛길에서 봄꽃, 나무들  
의 푸르름, 계곡의 물고기를 만나며 봄  
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어떤 회원은 수줍게 핀 진달래꽃과 생강

나무를 보며 '와우'를 연발해 회원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숲해설가님들은 깊이있는 생태해설로 생  
명의 소중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날 만난 나무와 꽃들은 때죽나무, 나도  
밤나무, 고깔제비꽃, 유리산 누에나방 등.  
구시계곡 물소리가 경쾌해 계곡 가까이  
에 가보니 어린 물고기들의 힘차게 움직  
이고 있었습니다.  
생태 답사는 오는 5월에도 진행기로 해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 <자연속 청소년들> (3월 20일)

자연속 청소년들 (이하 자속들) 2021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에는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의 숲, 들, 하천에  
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들의 시각으로 여수의 환경을 조사

하고 체험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는 청소년 환경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속들」  
올 해에는 특별히 '플로킹'을 주제로 해  
보려고 합니다.  
여수 곳곳을 '플로킹' 하고 성상조사하고  
보고서 작성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만남으로 '플로킹' 이야기도  
하고 환경연합 텃밭 팹말도 함께 만들었  
습니다.  
올 1년간 「자속들」의 활동 기대해 주세요.



### <텃밭 지킴이> (3월)

21년 3월 6일, 2021년 텃밭 가꿈이 10  
가족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무국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텃밭 현장  
까지 답사했습니다.

사무국에서 로터리로 밭도 갈았고, 자속  
들이 만들어 준 예쁜 팹말도 설치 했습  
니다.

지난 주말 비가 와서 땅이 아주 촉촉(?)  
히 젖어 있습니다.  
텃밭 가는 길, 벚꽃도 반겨주고 있습니다.

텃밭 가꿈이 단톡방에선 재밌는 이야기  
가 한창입니다.

"모종은 어디서 사시나요?"  
"퇴비는 언제 뿌리나요?"

초보 농사꾼들의 2021년,  
한해가 기대됩니다.



### 스티로폼 부표에서 친환경 부표로 (3월 9일)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전국 스티로  
폼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해양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고,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사  
업으로 전라남도는 277억원을 6개시군  
에 배정했습니다.

남비에 그칠 우려도 있어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지역환경연합의 적극적인 활동  
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 바,  
해수부의 이러한 정책에 기여한 통영거제  
환경연합에서 전남환경연합에 동참을 요  
청해왔으며, 활동방향과 활동방법 공유를  
위한 자리가 필요함을 공감하였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  
견학 및 사업진행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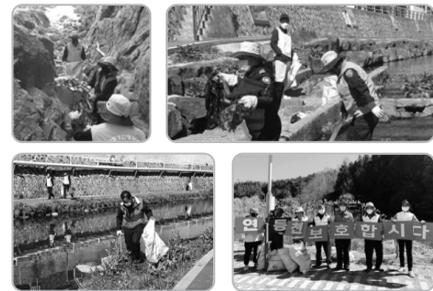
가졌습니다.



### 2021 세계 물의 날 청결 활동 (3월 2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늘 물의 날을 맞이하여  
오전에는 연등천 청결활동  
오후에는 오동도 쓰레기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기에 깨끗한데  
왜 청소를 하냐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할지라도 가까이 접근  
해서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사실 오늘 청소한거야 극히 일부분이라  
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최선을 다했답

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청  
결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글, 사진 / 박근호



### 걸어다니면 다 보인다

-한창진 회원님 만남-

3월 15일, 한창진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시민감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홍사단 아카데미, 전교조, 해직교사, 열린  
교실, 시민협, 넷통, 시민감동연구소  
..... 한창진 회원님을 수식하는 많은  
단체와 직함이 있지만 21년 동안 이어져  
온 여수풀꽃사랑만큼 한창진 회원님의  
실천적 환경운동의 면모를 잘 나타내는  
모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에 만들어진 「여수풀꽃사랑」  
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시되는 원칙은 바로 '대중교통을 이  
용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걷는다'  
는 행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걸

는다'는 것은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과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친환경운동으로  
까지 확산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 사건-사고 후 반대운동  
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 운동도 있는데요, 한창진 대  
표님은 사전 운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시  
고 89년부터 환경 교육 운동을 해 온 분  
이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육은 환경교육이  
라는 생각에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을 꾸려 환경교육을 놀이로 접근하고 체  
험학습으로 연계해 활동해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쓰레기문제에 대한 교육  
으로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행위도 중요  
하지만 바다에 대한 노래(바위섬 같은)를  
배우며 바다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  
도 환경교육 이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  
님으로 재직시절 '쓰레기통 없애기 운동'

도 학교는 또한 현장이어야 하고 운영이  
실천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권정생(아동문학가, 대표작 <강아지 똥>,  
<몽실언니>) 작가님이 생전 본인을 찾아  
오는 환경운동가들이 다 차를 몰고 온  
모습을 보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를 접하고  
그 말씀이 뇌리에 남아 지금도 차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한창진 회원님.

실천하는 환경운동의 한 방법으로 오늘도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실천하고 계신  
한창진 회원님, 회원님의 굳은 의지와  
깊은 마음이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